

연말 완성차업계 내수 순위경쟁 치열

르노삼성, SM6·QM6 앞세워 8만4458대 판매 32.4% 급증... 쌍용차 8만3379대 추월 4위 올라

올해 국내 완성차업계의 내수 순위 경쟁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하위권 업체들이 선전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1~10월)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르노삼성자동차는 8만445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3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완성차 5개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출시한 중형 자동차 'SM6'가 실적을 이끌고 있다. 올해 누적 4만1500대가 팔렸고, 자가용 등록 기준으로는 총 4만300대가 팔리며 중형차 1위 모델로 자리했다.

이에 따라 국내 완성차 5사 내수 순위에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011년부터 이어온 내수 1~3위를 현대차, 기아차, 한국GM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르노삼성이 쌍용차(8만3379대)를 근소하게 추월하며 4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판매량 4만6916대로 쌍용차(5만696대)에 뒤처졌던 르노삼성이 SM6의 인기 지속세와 9월 중형 SUV 'QM6' 출시로 신차 효



르노삼성 SM6



쌍용차 티볼리어

과를 더하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출시한 SM6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9월 출시한 QM6도 실적을 이끌어 크게 성장했다"며 "연초 목표인 내수 10만대 판매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매해 르노삼성과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4위 자리를 놓고 엇치락뒤치락 해왔다.

2013년에는 쌍용차가 3000여대 더

팔며 르노삼성을 제쳤다가 이듬해에는 다시 르노삼성이 1만여대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쌍용차가 9만9664대로 4위를 기록해 르노삼성(8만167대)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쌍용차는 남은 기간 '티볼리 브랜드'를 앞세워 판매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수익성에 보다 치중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는 올해 2007년 이후 9년 만에 3분기 누계 흑자를 달성했다. 티볼

리의 글로벌 판매량이 40% 가까이 증가한 덕이다.

이에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총 판매량은 12만5000여대를 기록해 올해 목표인 15만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자동차 내수 시장이 녹록지 않다"며 "상위권 업체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두 업체 모두 내수와 수출이 선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최순실 경제 파장” 차기 대선까지

“정부·정치권 재발방지 법적 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국내 주요 그룹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대부분 내년 대선(12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뉴시스가 최근 국내 30개 그룹을 대상으로 '내내의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곳이(26.7%)가 이같이 대답했다.

내년 1분기는 20%(6사), 내년 상반기는 16.7%(5사), 올해 연말은 1곳에 불과했다.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33.3%(10사)에 달했다.

대부분은 최순실 사태가 내년까지 우리나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다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온 것은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계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다 주요 그룹의 임직원들 소환이 잇따르면서 초비상 상황이다. /뉴시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그룹 총수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면서 혹시 모를 '오너 리스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확정 등 경영전략 수립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국혼란이 심화되면서 주요 법안들 처리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권의 기업압박' 문제와 관련, 대다수 기업인 23곳(76.7%)이 "정부 및 정치권이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경영유착 근절을 위해 재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가 13.3%, "현재 권력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 (3.3%)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발전적 모델이 수립돼야 한다", "정치와 경제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재계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뉴시스

인텔, '최첨단 인공지능 구현' 통합 전략 공개 "3년 뒤 현재 보다 100배 뛰어난 AI로 거듭날 것"

인텔이 디바이스에서 데이터센터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AI(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및 성장 가속화를 추진키로 하고 '인텔 네바나 AI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엔터프라이즈용 IT 기술을 통해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인텔은 21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는 컴퓨팅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동시에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3년 뒤에는 현재 수준에서 100배 뛰어난 AI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텔은 지난 8월 AI 스타트업 네바나시스템즈를 3억5000만 달러(약 4138억원)에 인수하는 등 AI 솔루션 사업 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AI로 인해 비즈니스가 운영되는 방식뿐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 셈이다.

인텔은 스마트 공장에서부터 드론, 스포츠, 워터보 검사 및 자율 주행차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기술 옵션 세트를 개발하고 있다.

◇인텔, 네바나 플랫폼 포드폴리오 도입

인텔은 우선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AI 포트폴리오인 인텔 네바나 플랫폼 포드폴리오(INPP)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AI 워크로드를 실행 중인 데이터 센터 서버 중 97%가 인텔 프로세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INPP가 업계 표준 기술과 관련된 대규모의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준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인텔은 내년 상반기 첫 번째 실리콘(코드명 레이크 크레스트)을 테스트 한 뒤 연말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네바나의 기술을 제온 프로세서에 밀접하게 결합한 새로운 제품(코드명 나이트 크레스트)을 로드맵에 추가했다.

레이크 크레스트는 신경망 네트워크를 위해 최적화된 제품으로 딥러닝을 위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하며, 고대역폭의 상호 연결을 통해 전체

는 컴퓨팅 처리 용량을 제공한다.

다이나믹 브라이언트 인텔 데이터센터 수석 부사장 겸 총괄 책임자는 "인텔 네바나 플랫폼은 복잡한 신경망을 훈련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고, 혁신적인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출시될 차세대 인텔 제온 파이 프로세서(코드명 나이트밀)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4배 향상된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텔은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코드명 스카이레이크)의 예비 버전 제품을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차세대 제온 프로세서 제품군은 통합 가속 기술인 AVX-512를 통해 머신러닝을 위한 추론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예정이다.

◇구글과의 클라우드 제휴... 계층 분석 위해 2500만 달러 투자

인텔은 구글과의 전략적 제휴를 발표하고, 엔터프라이즈용 IT 기술을 통해 개방성, 유연성, 안전성을 보장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양사간 협업은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쿠버네티스, 머신러닝, 보안, IoT(사물인터넷) 등에 초점을 둔 기술 통합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텔은 AI 연구 및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업계와 학계 전문가를 포괄하는 인텔 네바나 AI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인텔은 AI가 세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및 기술 협력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계층 분석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발전을 위해 브로드 인스티튜트(BI)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한다.

인텔-브로드 센터 계층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의 연구원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5년 간의 협업을 통해 계층 데이터의 통합과 처리를 도와주는 새로운 툴과 인프라의 구축, 최적화 및 공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계층 분석을 위한 최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적용 사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지능형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뉴시스

“공기 중 1μm 미만 바이러스 잡는다”

UNIST 장재성 교수팀, '전기식 바이러스 농축기' 개발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의 장재성 교수팀이 정전기 힘을 이용해 공기 중 미세 바이러스를 채집하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한 바이러스 입자를 신속히 감지할 수 있어 의료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바이러스 입자가 전하를 띠게 만들어 전기적으로 끌어당기는 '전기식 바이러스 농축기'를 개발했다.

이 농축기는 1μm(마이크로미터, 1μm는 100만분의 1m) 미만의 작은 입자도 효과적으로 채집하며, 채집한 바이러스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장재성 교수는 "새 장치는 부드럽게 끌어당기므로 부서지기 쉽고 민감한 바이러스의 채집에도 유리하다"며 "공기 전염병 예방과 역학조사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1μm 미만의 바이러스 입자는 채집이 어렵다. /뉴시스

장재성 교수팀이 개발한 농축기는 전기적인 힘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0.1μm 미만의 입자라도 높은 전기장도를 가져 효율적인 채집이 가능하다.

또 채집속도가 낮아 바이러스 입자가 용액에 부딪히는 충격도 줄일 수 있다. 덕분에 활성(live) 바이러스 농도가 높아져 추후 분석에도 유리하다.

이 농축기는 미국 SKC사의 바이오 샘플러(BioSampler)와 비교한 결과 활성 바이러스의 농도가 적게는 7.2배, 많게는 1680배까지 높았다.

장재성 교수는 "이 농축기는 입구에서 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전력소모도 적어 휴대용으로 제작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며 "현재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됐으며, 채집된 입자를 신속히 감지할 센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경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환경과학기술(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11월호에 게재됐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